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70>

더 평범한 사람이 돼라

학승이 물었다.
“화상의 기풍은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노승은 출가한 이래로 활계(活計)를 짓는 일 따위는 안 했어.”

問 如何是和尚家風
師云 老僧自小出家 抖擻破活計

활계(活計)는 살아가기 위한 방안을 말한다. 비구는 원래 걸사(乞士)라는 말이다. 출가자는 먹는 것은 걸식해서 먹고, 잠은 나무 아래에서 가사를 펴고 자면 된다. 처·자식이 없으니 오로지 자신의 미진한 수행만 걱정하면 된다. 구태여 일반 인처럼 활계를 지을 필요가 없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북방에서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활계를 전혀 짓지 않을 수 없다. 최소한 잘 집이 있어야 하고, 먹는 것도 눈·비 올 때나 태풍 등을 고려해서 약간의 비축은 해놓아야 한다. 북방 불교는 남방 불교와 다르다. 특히 우리나라는 스님이라고 산중 사찰에 아무나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있지 않다. 사찰은 사중살림을 예산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 사찰이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것이다. 선방도 소위 선방부라고 해서 치열한 입방 경쟁을 거쳐야 한다.

그렇다보니, 이런저런 이유로 대중 사찰에 기거하지 못하는 낙오자들은 정처 없이 방황하게 마련이다. 혼자 몸통이인데도 편안하게 거처할 곳이 없는 것이다. 결국 출가해서도 늘 활계를 지으면서 살아가야 한다. 한국 불교의 모든 문제점은 여기서

부터 시작된다. 먼저 제도를 마련해놓고 뒤에 입문케 하는 방식이 아니고, 누구든지 출가를 허락했던 전통적 방식을 고수하는 한국불교는, 그래서 출가해도 세속에 있는 것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긴 시간 활계를 짓는다고 해서 딱히 마땅한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왕지사 출가했으면 이 한 몸 자연의 섭리와 진리의 흐름에 내 맡겨야 한다. 활계는 필요 없다. 병도 죽어도 삶도 모두 부처님의 정신에 맡기고, 생·노·병·사 그 자체에 순응하면 된다. 수행자는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출가한 것이 아니다. 평범한 사람보다 더 평범한 사람이 되려고 출가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학승이 물었다.
“노스님께서 4구를 떠나서 제발 한 말씀 일러 주십시오.”

조주 스님이 말했다.
“노승이 항상 그 속에 있는 것을 어찌겠느냐.”

問 請和尚離四句道
師云 老僧常在裡許

4구는 ①유(有) ②무(無) ③역유역무(亦有亦無) ④비유비무(非有非無)의 4가지 구절을 말하기도 한다. 또는 옛날에 진리가 담겨있는 글을 네 마디로 요약해서 노래했던 계(偈)를 말하기도 한다. 여기서 4구는 심층적인 요점을 담은 말로 해석하면 될 것이다.

질문자는 부처님이나 조사들이 즐겨 말했던 4구를 떠난 한 마디를 듣고 싶은 것이다. 즉, 어떻

게든 유와 무를 떠나고, 일체 언설이나 사랑(思量)을 떠나서 한 마디 해달라고 한 것이다. 이것 매우 어려운 요청이다. 도대체 4구를 떠나서 무엇이 달리 있다고 선 뜻 한마디 하겠는가.

보통사람 들에게는 딱 기가 막힐 질문이지만, 조주 선사에게는 그런 요청이 별로 어렵지 않게 여겨질 뿐이다. 그래서 “노승이 항상 그 속에 있는 것을 어찌겠느냐” 하고 한 마디 톡 던졌다. 잘 들어다보면 이것이야말로 바로 4구를 떠난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 선문답은 만공 선사가 매미소리를 잡아오지 못하는 자에게 벌금 10전을 물리겠다고 하자, 보월 스님이 주머니에서 10전을 내주고 칭찬을 받았던 일화와 유사하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반아바라밀입니까?”
저주 스님이 말했다.
“마하반아바라밀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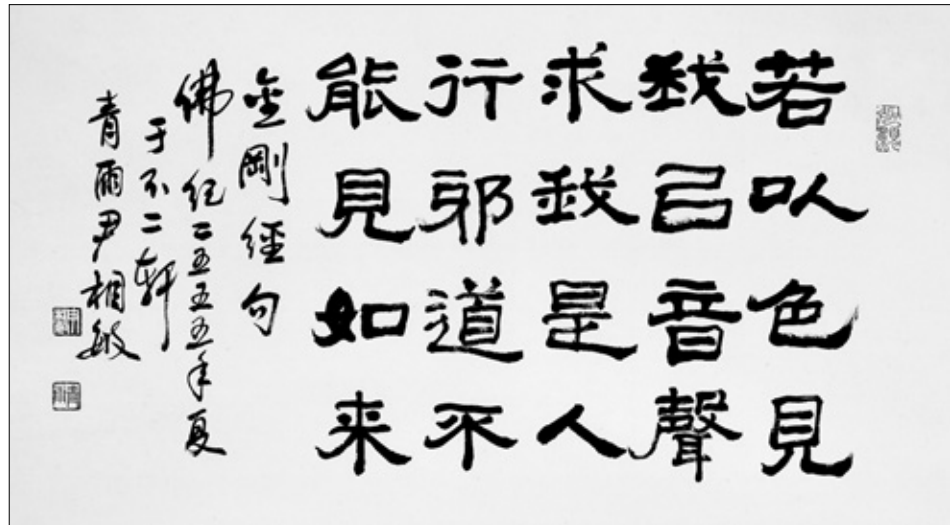
問 如何是般若波羅蜜
師云 摩訶般若波羅蜜

반아는 ‘지혜’이고, 바라밀은 ‘노력’이다. 반아바라밀은 ‘지혜를 얻기 위한 수행’이라는 뜻이다. 마하는 크다(大)라는 뜻이다. 조주 스님은 여기서 반아바라밀이 바로 마하반아바라밀이라고 말했다. 지혜를 닦는 수행이 인생에서 가장 큰일이라는 뜻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운상민의 서화산책 ⑨ 금강경

밖에서 구하지 말라



若以色見我 以音聲求我 是人行邪道 不能見如來(약이색견아 이음성구아 시인행사도 불능견여래)
만약 육신으로써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써 나를 구하면 이 사람은 샅된 도를 행하는 것이라 능히 여래를 볼 수 없으리라. <금강경>

若: 갈을 약
求: 소리 성
邪: 구할 구
見: 간사할 사
能: 능할 능

청우불금능행구약
운불기강견사아이
상운이이경여도시
민현운구래불인성
견오년하



서예가·동아미술상 수상



김회규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선어록 해제 ⑤ 한국선과 선어록 21

선교대변문

선·교를 배우는 자라면 직접 터득해야

선교의 일치 내지 차별의 문제는 한국선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수성 가운데 하나이다. 선교의 일치와 일치이 규봉종일이 <도서>에서 선과 교가 매치되어 한다는 당위성을 10가지 항목으로 주장한 이래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한국선의 역사를 통해 면면히 계승돼 왔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딱히 그렇지만은 않다. 신라 말기 교학적인 풍토에다 새롭게 수입된 선법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는 무엇보다도 교학과는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것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그것은 교학적인 분위기가 다져져 있던 신라의 불교에 선법이 수용되고 뿌리를 내리며 전개되기 위해서는 교학과는 다른 무엇인가가 요구됐다.

이에 선법 수입자들은 의도적으로 선과 교의 차별을 주장했다. 가령 무명 국사의 <무설토론>에서는 유설(有舌)과 무설(無舌)을 설정해 무설의 뛰어난 점을 말했고, 범일 국사의 <진귀조사설>에서는 조사선과 여래선을 설정하고 여래선을 교학에 빚대어 은근히 조사선의 우위를 강조했다.

이 같은 초기 한국선법의 전통은 고려시대에 무신

오직 여여하고 청정한 해탈만을 가지고 선의 본래해탈로 간주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잘못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좌선도 해보지 않고 선교의 도리도 모르면서 선교를 말하는 간주하는 것이라 질책한다. 이에 무경자수는 선교의 차별에 대해 <선가금설>을 근거로 선교에서 “그 연구는 비록 비슷할지라도 그 지취(志趣)는 하늘과 땅만큼 아득히 차이가 있으며, 선목을 살펴보면 원돈의 해인과 선의 심인은 비록 비슷할지라도 비슷하지 않다. 왜냐하면 원돈의 입장인 해인의 경우 처음에는 인과의 도리가 있다고 설하지만 나중에는 인과가 없다는 경지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의 입장인 심인의 경우 그와는 달리 인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과가 없다는 흔적마저 남기지 않기 때문이다”고 진단한다. 또 <진각대사명정록>을 근거로 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식정을 잊고 도리에 계합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소위 보살의 경우이다. 부처님이 설한 대승은 대승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처님이 설한 소승도 소승에 머물러 있지 않으며, 부처님이 설한 이(理)·사(事)도 이·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처님이 설한 색·공도 색·공에 머물러 있지 않다. 그래서 낱말의 글자와 낱말의 구절은 사라지지 않는 가명(假名)으로서 원용하게 그것을 회통시켜주고 있다. 둘째는 소위 조사의 경우이다. 부처님이 설한 대승에 본래 대승이 없고 부처님이 설한 소승에도 본래 소승이 없으며, 부처님이 설한 이·사에도 본래 이·사가 없고, 부처님이 설한 색·공에도 본래 색·공이 없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무경자수는 또한 “대승원교·대승돈교·대승시교의 삼교에서 말한 바도 역시 선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말한다. 기타 <불조진심선격초>와 <순정록>의 말을 통해 교가의 결립없는 법은 바야흐로 일미로 돌아가지만 그 일미의 흔적마저 불식시켜주는 것이 곧 선가에서 일심을 관찰토록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쓸데없이 말하고 듣는 지혜를 가지고 함부로 남에게 자기자랑을 하지만 발로는 실제(實際)를 밟지 못해 이해와 행위가 어긋나서 물을 건너고 산을 찾느라고 죽고 밥만 속내내 교망(敎網)에 막혀있어 일생을 죽이면서 지내는 것은 교자(敎者)의 병통이다.”

노끈은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뱀인 줄 알아 의심하고, 방은 본래 텅비어 있는데 귀신이 있는 줄 알고 두려워하며, 마음에는 진·망의 분별견해가 남아 있고, 성품에는 범·성의 분별이 남아 있으며, 누에처럼 실을 뽑아서 스스로 자기의 몸을 움아매는 것은 삼승인의 병통이다. 그런 즉 선·교의 병통만 해도 역시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무릇 선·교를 배우는 자라면 자세하게 알아서 직접 터득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

스스로 자기 몸 움아매는

삼승인의 병통이다

정권의 지배를 거치면서 고려 후기에 가면 변조대사 신돈과 태고보우 국사로 대변되듯이 화엄을 위주로 하는 교학과 선이 주도권을 다투는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이 같은 모습은 조선시대 중기에 청허휴정의 <선교석>과 <선교결>은 선주교종(禪主敎從)의 입장에서 다시 찾아볼 수가 있다. 나아가서 <선가귀감>도 예외는 아니다.

조선시대 후기에 이와 같은 선교차별의 모습을 고금의 제가에서 전해오는 별록을 끌어모아서 선·교를 배우는 자들의 미혹을 이해시켜주려 한 것이 곧 <선교대변문>이다. 무경자수는 우선 <선교대변문>에서 오늘날 선과 교를 배우는 자들은 선과 교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으로 선과 교를 간주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실교에 대해서는 소위 곧은 소나무와 굽은 가지 나무와 긴 다리의 학과 짧은 다리의 물오리가 실상 아님이 없다고 하여, 소위 삼계는 유심이고 만법은 유식이라는 식이다. 그리고 선에 대해서는 소위 초목에 부는 바람과 물가에 비친 달이 모두 진심을 드러내고, 노란 꽃 푸른 대나무가 분명하게 반야를 설명한다”고 말한다. 나아가서 “어떤 경우에는 원돈 가운데서 해인의 지혜와 바탕은 인을 벗어나 있고 과를 벗어나 있음을 가지고 선의 심인으로 간주하고, 어떤 경우에는 돈교 가운데서 일체법이 연(緣)을 벗어나 있고 상(相)을 벗어나 있으며 능(能)을 벗어나 있고 소(所)를 벗어나 있으며 낱말이 무잡하고

불자들 간의 선물도 『콘사이스판 불교사전』으로 합시다. 불교의 모든 지식이 이 한 권에 다 들어 있다.

불자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콘사이스판 불교사전』

Concise Buddhism Dictionary

사찰의 각종 행사 때, 불교대학 졸업식 때,
선물은 『콘사이스판 불교사전』으로 합시다.



1인 1불자
『콘사이스판 불교사전』
갖기 운동

알고 싶은 것, 궁금한 것은
즉시 해결해야만 지식으로 승화된다.

『콘사이스판 불교사전』의 특징

1. 총 1,216쪽, 4,950여 항목을 수록했다.
불자들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단어 4,950여 개 항목을 엄선했다.
2. 각 단어에 대한 설명이 상세·명확·풍부하다.
3. 영어 세대를 위해 각 단어의 개념을 영어로 요약 표기했다.
4. 콘사이스판으로 누구나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다.
고급 사전 용지를 사용해 두께가 3.2cm로 가뭄다.
5. 크기는 작지만 내용은 백과사전 못지않게 풍부하다.

한 단어만 찾아도 관련 지식이 쏟아진다. 부처님 생애는 물론, 인도·중국·한국·티베트·일본불교의 역사와 초기·원시·부파·대승불교 그리고 밀교의 교리와 역사·사상·철학·문화가 다 서술되어 있다. 특히 반야, 공사상, 중관사상, 유식사상, 대승불교, 선사상, 무아, 열반 등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그 개념의 성립과 기원, 변천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서술되어 있다.

구입 문의
민중사
서울시 중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s.org E-mail: minjoksas@chol.com ●법보시 주문받습니다.

김승동 편자(부산대학교 명예교수)
117×178mm / 고급 사전 용지 사용 / 1,216쪽
4,950여 개 항목 수록 / 고급 양장 / 특수 제본 / 값 38,000원